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 士 學 位 論 文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노숙인의 사회적응 대안에 관한 연구

2009年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社會福祉學科

老人福祉專攻

金 元 一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黃 振 洙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노숙인의 사회적응 대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Christian alternatives to the social
adaptability of the homeless

2009年 6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社會福祉學科

老人福祉專攻

金 元 一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黃 振 洙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노숙인의 사회적응 대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Christian alternatives to the social
adaptability of the homeless

위 論 文 을 行 政 學 碩 士 學 位 論 文 으 로 提 出 함

2009年 6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社會福祉學科

老人福祉專攻

金 元 一

金元一の 社會福祉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9年 6月 日

The logo of Hansung University is a large, light blue stylized letter 'H' that serves as a background for the text. The text 'HANSUNG UNIVERSITY' is written in a light gray, sans-serif font across the middle of the page.

審査委員長 (인)

審査委員 (인)

審査委員 (인)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목적	1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4
제 1 절 노숙인의 개념 및 분류	4
1. 노숙인의 개념	4
2. 노숙인의 분류	6
제 2 절 노숙인의 발생원인	7
1. 개인적 측면	8
2. 사회 환경적 측면	8
제 3 절 노숙인의 행태 및 변동	10
1. 노숙인의 행태	10
2. 노숙인의 변동이 보여주는 의미	10
3. 지역별 노숙인의 증감	11
제 4 절 정부의 노숙인에 대한 지원	12
1. 행정지원	13
2. 재정지원	16
3. 자활지원	18
4. 외국 지원 사례의 시사점	20
5. 노숙인 지원정책의 문제점	25
제 3 장 성서적 관점으로 보는 노숙인	28
제 1 절 구약성서의 노숙인 고찰	28

1. 창조	28
2. 이스라엘의 노숙생활	30
3. 구약시대에 노숙인이 된 사람들	32
4.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노숙상태로 쫓아내신 원인	36
제 2 절 신약성서의 노숙인 고찰	40
1. 노숙문제가 발생하는 사회현상	40
2.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	41
3. 예수그리스도의 하신 일	45
제 3 절 노숙인의 기독교적 사회적응 대안	50
1. 왜 기독교적 대안인가?	51
2. 노숙인 사역을 하고 있는 신생교회의 적응대안	54
3. 노숙인의 사회적응 자활 7단계 시스템적용	59
제 4 장 결 론	64
참 고 문 헌	66
Abstract	68

《표 목 차》

<표 2-1> UN이 정한 “Homeless”의 기준	5
<표 2-2> 미국NCH(National Coalition for Homeless)	5
<표 2-3> 맥킨니법(U.S. General Accounting Office; GAO, 1999)	5
<표 2-4> 노숙에 이르는 요인	9
<표 2-5> 최근 3년간 전국쉼터 및 거리노숙인의 현황(단위: 명)	10
<표 2-6> 최근 3년간 주요 도시별 노숙인 현황(단위: 명)	11
<표 2-7> 사회복지 사업법	12
<표 2-8>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14
<표 2-9> 을지로주변 무료 급식표	16
<표 2-10> 서울역 무료 급식표	17
<표 2-11> 용산역 무료 급식표	18
<표 2-12> 기타지역 무료 급식표	18
<표 2-13> 노숙인 상담보호센터	18
<표 2-14> 노숙인 쉼터	19
<표 2-15> 노숙인 지원기관(상담소)	19
<표 2-16> 서울시 취업지원 정책내용	19
<표 2-17> 영국 주택법에 의한 노숙인우선 지원 대상	23
<표 2-18> Supporting People Program의 지원 대상	24
<표 3-1> 노숙인 자활 7단계 시스템	59

《그 립 목 차》

<그림 2-1> 실업자·실업률 추이	9
<그림 2-2> 노숙인 종합지원 체계	13
<그림 2-3> 노숙인 지원정책의 흐름	15
<그림 2-4> 노숙인 관리 체계도	20
<그림 3-1> 신생교회 노숙인 자활 7단계 시스템	6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목적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노숙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 된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진정국면에 들어선 2000년 이후에도 여전히 노숙인의 수는 줄어드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노숙인의 수는 과연 얼마나 되는가? 지난 2006년 하반기 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전실노협(전국 실직 노숙인 대책 종교시민단체협의회)의 집계에 의하면 전국의 노숙인 수는 쉼터 노숙인 3,300명과 거리노숙인 1,300명 등 대략 4,600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사실은 이들의 모습이 갈수록 더욱 비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숙이 장기화되고 만성 노숙인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 또한 변화되었다. 처음 노숙인문제가 사회 문제화 된 1997년 이후에는 이들을 동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들은 어엿한 한 가정의 가장이었으나 갑작스런 실직으로 거리로 나앉은 도와줄만한 빈자(Deserving poor)였던 것이다.

해가 거듭될수록 거리에서 보이는 이들의 모습은 불결하고 언제나 술에 찌들어 있으며 게으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마저 포기해 버리고 아무 공공장소에서나 널브러져있는 사지 멀쩡한 거지나 다름이 없다. 경기가 회복되었음에도 여전히 노숙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은 이미 도와줄 가치가 없는 빈자(Undeserving poor)로 인식되고 있다. 이제는 그들이 동정의 대상에서 사회의 혐오대상으로 바뀌었다.

서울시는 이들의 모습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Clean Seoul”을 만든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노숙인의 거리생활을 종식시키기 위해 종교단체 중심으로 행해져왔던 거리급식을 반강제적으로 중단시키고, 이와 동시에 각 상담보호센터에 상담할당제를 채택하여 월 단위 일정한 노숙인 쉼터 입소목표를 부여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감추기 정책”, “밀어내기정책”으

로 과연 이러한 정책들로 노숙인들이 거리생활을 마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안보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사회의 어둠으로 그들을 몰아가는 이해하기 힘든 노숙인 정책은 임시방편의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 지배적 의견인 것 같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숙인을 위한 문제해결방안을 일자리를 갖게 해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노숙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쉼터를 마련해줘도 요즘 노숙인들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쉼터에 입소해도 오래지않아 거리로 뛰쳐나온다. 얼마간의 돈을 벌면 그것을 생활자금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술값으로 허비해 버린다. 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그들에게 쉼터의 수용이나 일자리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먼저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지 않고는 그 어떠한 정책도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숙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정상인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실상은 의지력이 없거나 낮아 스스로 문제의 해결의식이 결여되어있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신체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동정보다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가족과 사회 모두에게 버림을 받은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는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들을 사회문제로 바라보고 일반시민과 분리하여 격리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의욕과 용기를 갖게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노숙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현재의 노숙인에 대한 현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숙인의 현황은 기존의 통계, 선행 논문자료 및 언론보도내용을 중심으로 이를 근거하며 노숙인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특히 노숙자에 대한 실천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신생교회의 대안을 중심으로 자활7단계에 의한 사회적응 대안을 제시하고자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는 날로 심각해지는 노숙인들에 대한 문제점을 재인식하고 정책 방안의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노숙인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책은 노숙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범죄예방은 물론 밝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 범위는 노숙인의 사회 적응적 대안에 관한 연구로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대안의 초점을 맞추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적 접근방법을 통해 선행연구 및 발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목적에 알맞게 인용하는 문헌적인 조사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국내 석사학위논문, 노숙인 지원정책과 사회복지실천에 관한 단행본, 학술단체 연구논문, 전국 실직노숙자 대책 종교 시민단체 협의회, 서울시 노숙자 다시서기지원센터자료, 언론보도 등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였고, 제2장에서는 노숙인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통해 노숙인의 정의, 특성, 발생원인 및 외국의 노숙인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선행연구와 분석의 틀, 노숙인 복지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노숙문제에 대해서 성서를 중심으로 연구하였고 노숙사역자의 준비에서 자세, 과정에 대하여 논하였다. 제4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 지난 10여 년간 청량리와 서울역에서 노숙인 선교와 무료급식 및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해 온 공동체 사역을 한 경험 등을 통해 노숙인 복지 사역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실천 대안을 제시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노숙인의 개념 및 분류

1. 노숙인의 개념

노숙인¹⁾을 영어로는 홈리스(homeless)라고 한다. 이는 집이 없는 저소득층을 지칭한다. 역사적으로 홈리스의 원조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라고 할 수 있다. 디오게네스는 자발적인 홈리스였지만 최근의 홈리스는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낙오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8·15광복 후엔 “거지”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여 한국전쟁을 거치며 ‘양아치’로 변했고, 5·16군사정변을 통해 ‘넙마주이(일명: 재건대)’로 변했으며,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부랑인’으로 정의되었다. 정부는 이들을 경제적 약자보다는 우범자나 불순분자와 같은 죄인 시 하였다는 것이 오늘날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정부는 ‘노숙자’에 대한 공식적인 용어를 ‘부랑인’²⁾을 사용했는데 이들은 대체적으로 기질이 태만하고, 일정하게 사는 곳과 하는 일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부랑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상인과는 동화되기 어려우며, 지저분하게 보이는 외모로 혐오감을 준다.

1997년 IMF사태는 새로운 형태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면서 ‘노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한국 도시연구소(1998)에서는 노숙인을 “실제로 노숙하거나 노숙에 가까운 불안정한 주거상태에 있는 사람들”로 정의하였다. 노숙인(Homeless)의 개념은 아직 어느 한가지로 합의되지 않았다. 서로 다른 상황과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노숙인을 정의하는 것에 따라서 그 범위와 의미가 다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 거리에서 잠자는

-
- 1) 노숙인의 개념은 ‘실제로 노숙하거나 노숙에 가까운 불안한 주거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학계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 2) 부랑인의 개념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무의무탁한 사람, 연고지가 있어도 가정 보호를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에게 위해와 혐오감을 주는 등 건전한 사회질서유지를 곤란하게 하며,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정상적인 사고와 활동능력이 결여된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 앵벌이, 걸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1987).

사람 외에도 노숙인 쉼터와 같은 임시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친척이나 친구의 집에서 임시로 얹혀사는 사람, 쪽방과 같은 열악한 주거공간에서 거주하는 사람 등 잠재적 노숙상태에 있는 사람까지도 포함하여야 한다.³⁾

따라서 노숙인이라는 용어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마저도 ‘실직노숙자’, ‘홈리스’, ‘거리숙박자’, ‘행려자’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노숙인이란 사전적 정의는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정해진 주거 없이 공원, 길거리, 지하철 등을 거처로 삼은 사람으로 되어있다.

<표 2-1> UN이 정한 “Homeless”의 기준

① 집이 없는 사람과 옥외나 단기보호시설 또는 여인숙 등에서 잠을 자는 사람
② 집이 있으나 UN의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집에서 사는 사람
③ 안정된 거주권과 직업과 교육, 건강관리가 충족되지 않은 사람

출처: 노숙인 다시서기 지원센터, http://www.homelesskr.org/camp/camp_matter.asp.

<표 2-2> 미국NCH(National Coalition for Homeless)

정규적이고 고정된 적절한 주거시설이 없고 주로 길거리나 일시적인 보호시설, 사람이 자도록 고안되지 않은 공공의 장소 등에서 자는 사람(NCH, 1998)

출처: 노숙인 다시서기 지원센터, http://www.homelesskr.org/camp/camp_matter.asp.

<표 2-3> 맥킨니법(U.S. General Accounting Office; GAO, 1999)

① 밤을 보낼 적절한 고정적이고 정규적인 주거가 없는 사람
② 밤을 보내는 주 주거지로 일시적인 주거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혹은 사설의 임시보호시설, 수용을 목적으로 개인들에게 임시적 주거를 제공하는 시설을 활용하는 사람
③ 사람이 자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되지 않은 공공이나 사설의 시설 등에서 밤을 보내는 사람

출처: 노숙인 다시서기 지원센터, http://www.homelesskr.org/camp/camp_matter.asp.

3) 노숙인 다시서기 지원센터(www.homelesskr.org).

2. 노숙인의 분류

최근 몇 년간의 노숙인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위기 상황과 계절은 노숙인들의 증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경제위기는 청년실업을 가중시키면서 급기야 20대 노숙인의 등장이 처음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동절기가 가까울수록 거리의 노숙인의 수는 줄어들었다가 날씨가 풀리는 시점부터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것은 쉼터의 입소현황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숙인을 분류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뉜다. 노숙인의 지원 대책을 중심으로 분류할 때, 노숙인의 존재형태와 건강상태, 생활을 중심으로 분류할 때 등에 따라 노숙인은 전혀 다르게 분류할 수 있다.

1) 불량인

부랑인의 개념은 윤리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의 인식은 경제적 빈곤의 약자라는 의미보다 우범자 또는 불순분자와 같은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어 일반인들이 두려움과 지저분하고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여 무의식적으로 피해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일시적 노숙인

최근 경제위기는 기업들의 구조조정, 기업의 부도 등으로 인한 실직이나 가정해체 등으로 일시적인 노숙상태에 있는 사람들로 이런 일시적 노숙인은 기존의 노숙인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녔다. 기존의 노숙인들은 근로의욕을 상실하였거나 사회에 역할을 담당할 수 없으나, 실직이나 가정해체와 같은 일시적으로 노숙인이 된 사람은 언제든지 상황이 호전되면 노숙생활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3) 잠재적 노숙인

현재는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지 않지만 노숙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노숙과 비노숙을 반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있어 일세나 월세로 쪽방과 같은 곳이나 비닐하우스 촌, 만화방 거주자, 노숙인 쉼터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사람들로 보호와 치료가 똑 같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가족과 해체되어 단독으로 지내는 경우가 많아 건강관리와 더불어 주민등록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회복이 절실하다.

4) 보호대상 노숙인

노숙인들은 알코올, 약물중독과 같은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노숙인들은 치료프로그램이 없는 집단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쉽게 다시 거리로 나서는 경우가 많다. 입소와 퇴소를 반복하는 것으로도 아직 자활의 끈을 놓지는 않았거나 계절적인 영향, 질병의 고통으로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2 절 노숙인의 발생원인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노숙인의 문제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지난 10여 년간 정부와 민간의 자원이 지속적인 노숙인복지에 투입되면서 초기의 응급구호활동이 재할 및 자활사업, 주거지원 등의 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며, 임시사업에서 사회복지 사업법에 근거한 제도적 사업으로 정착되었다.

이처럼 노숙인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제도화는 이루어졌지만 사회적 관심은 줄어든 현실에 초기의 역동성이 감소된 채 현상유지만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신원우, 2007:23)이 등장하게 된다. 노숙인 사업이 2005년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로 이양하였고, 이것은 새로운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으로 지적한다(남기철, 2007:24). 노숙인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원인과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원인이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원인은 적절한 주거의 불충분한 공급과 같은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의 설명과 정신질환, 가족사에서의 특성과 같은 개인내적인 측면에서의 요인들 중에서 있다(남기철, 2007:24).

노숙인에 대한 많은 연구는 서로 다른 노숙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어느 것이 맞고 틀렸다는 판단을 할 수 없으며, 원인에 따라 ‘선택에 의한 노숙론’, ‘부적절한 서비스에 의한 손상론’, ‘사회구조론’으로 구분하고 있다. ‘선택에 의한 노숙론’은 노숙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내적 특성에 의해 노숙을 선택한 것이며, ‘부적절한 서비스에 의한 손상론’은 지역사회에 충분한 서비스가 없는 상태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탈 시설 화나 사회복지서비스의 결핍으로 인한 것으로 구분한다.

‘사회구조론’에서는 노숙인이 발생하는 원인을 국가의 소득정책, 주택정책, 복지국가체계의 완결성 등과 같은 정책과 제도에서 원인을 찾는 논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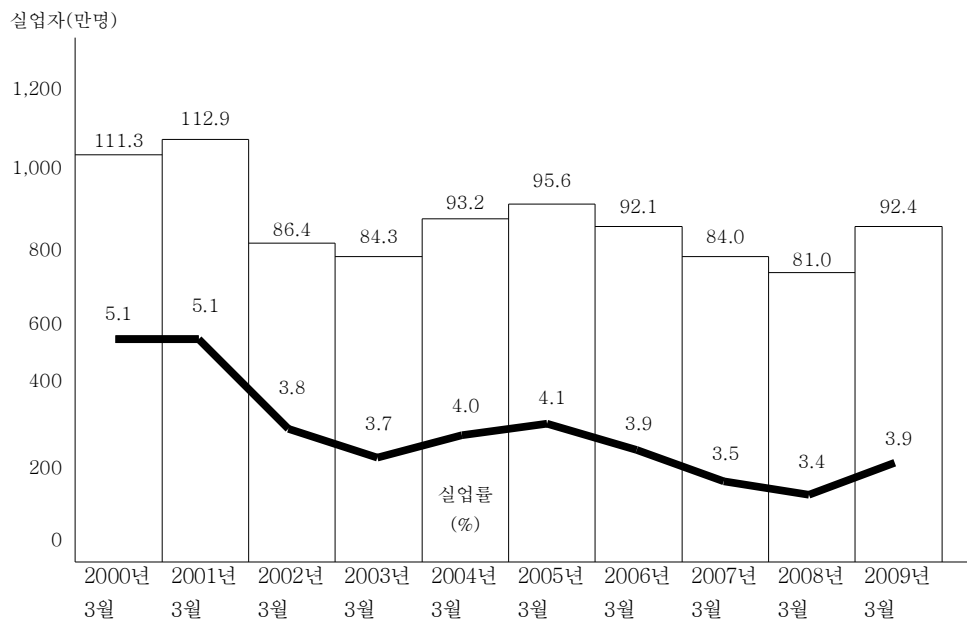
1. 개인적 측면

노숙인 발생의 개인적인 원인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환경에 의해 노숙이 잠재적으로 진행되어왔고, 특정한 사건을 통해 노숙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신원우(1999)의 연구에서는 세 가지 특성(개인, 가족, 사회 환경)으로 분석하였다. 개인특성은 교육정도와 구직방법, 실직이전의 월평균 수입 가족특성은 가족의 관계(결혼안정성), 주거의 안정성 사회 환경특성은 친지나 친구의 사회적 지지요인이 노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밝히고 있다.

2. 사회적 측면

사회적인 원인은 빈곤으로 이어지는 실업과 경기침체와 같은 사회구조의 모순에서 시작된다. 1990년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면서 실업률이 2% 내외로, 약 40만 명이 실업상태였으나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09년 3월 현재 실업률은 3.9%로, 약 1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림 2-1> 실업자·실업률 추이



출처: 통계청(2009), <http://www.nso.go.kr/>.

노숙인을 위한 많은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빈곤과 주택문제이며,⁴⁾ 노숙인 다시서기지원센터의 설문조사와 면담을 기준으로 노숙에 이르는 요인을 살펴보면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표 2-4> 노숙에 이르는 요인

① 불우한 가정환경 - 다수의 노숙인들은 불우한 가정환경을 경험한다.
② 저학력, 연소취업 - 노숙인들은 충분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일찍 일(직업)을 시작한다.
③ 불안정한 주거생활 - 주거공간을 잃게 되면 노숙의 시작을 의미한다.
④ 취약한 가족구성 - 빈곤과 실업은 정상적인 가족을 해체한다.
⑤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상태 - 정상적인 주거환경을 갖지 못한다.
⑥ 사고 - 실업, 이혼, 질병, 배우자의 사망, 재해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정상적인 삶을 잃게 된다.

출처: 노숙인 다시서기 지원센터(2009) 내용요약정리.

4) 이문제(2001), “한국 노숙자 복지사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43.

제 3 절 노숙인의 행태 및 변동

그동안의 노숙인 관련 연구, 조사는 노숙인 복지시설현황이나 서비스현황 및 제도적 지원을 받는 상담보호센터, 쉼터 등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왔다. 노숙인 문제의 해결은 정확한 전국적인 노숙인 현황파악은 중요한 열쇠이고 시작이 된다.

1. 노숙인의 변동

전국의 11개 상담보호센터와 67개의 쉼터를 통해 조사된 노숙인은 2009년 2월 현재 쉼터보호인원 3,067명, 응급보호인원 808명, 보호인원 3,875명, 거리노숙인 1,588명을 합해 총 5,463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인천 등 5대도시의 쪽방거주민은 총 6,20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⁵⁾

<표 2-5> 최근 3년간 전국쉼터 및 거리노숙인의 현황(단위: 명)

구분	2007년	2008년(8월)	2009년(2월)
계	4,544	4,448	5,463
쉼터	3,363	3,163	3,875
거리	1,181	1,285	1,588

출처: 노숙인 실태조사토론회, 2009.

이러한 수치는 약 6개월 전인 2008년 8월 보건복지가족부의 전국 노숙인 현황조사에서 밝히고 있는 4,448명보다 915명이 증가한 것으로 경기불황 등으로 노숙인구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 된다.

2. 노숙인의 변동이 보여주는 의미

1997년 IMF외환위기를 시작으로 노숙인의 수가 급증하였다가 이후 경기회복으로 감소세를 유지하였으나 최근 국제적으로 경제위기를 통해 그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의 위기와 영세자영업자들의 어

5) 서울시 노숙인 복지 시설협회, “2009 노숙인 실태조사 토론회자료”, p.7.

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자의 일부가 노숙인으로 추락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숙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게 된다. 개인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위기가 가져온 결과이기 때문에 누구나 언제든지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3. 지역별 노숙인의 증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노숙인이 존재하는 곳은 서울로 2009년 2월 노숙인 조사에서 거리 노숙인이 633명(남자 612명, 여자 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거리노숙지에서만 현장조사를 하여 파악하였기 때문에 외곽지역의 노숙인구에 대해서는 집계가 불가능함에 따라 전체거리노숙인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표 2-6> 최근 3년간 주요 도시별 노숙인 현황(단위: 명)

구분	2007년	2008년(8월)	2009년(2월)
계	4,544	4,448	5,463
서울	2,929	2,952	3,389
부산	498	649	708
대구	274	261	392
인천	116	194	219
대전	155	138	144
경기	353	241	345

출처: 노숙인 실태조사토론회, 2009.

이번 조사는 표에서와 같이 경남, 전남 등 노숙인 시설이 없는 지역의 경우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2005년 이후 노숙인복지정책의 지자체 이양이후 쉼터 등의 노숙인시설이 없는 지자체, 지역에서의 공식적인 파악이 누락되어 실제 더 많은 노숙인이 존재하고 있다.

제 4 절 정부의 노숙인에 대한 지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공공부조에 관한 내용이 있다.⁶⁾ 현재 공공부조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노숙인은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숙인’에 대하여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관심을 갖게 된지 10여년이 흘렀다.

<표 2-7> 사회복지 사업법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모부자복지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윤락행위등방지법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차.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거. 농어촌주민의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너.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2.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공부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IMF외환위기는 우리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빈곤의 문제가 있는 계층에게는 많은 고통을 주게 된다. 실직노숙이라는 단어의 등장은 노숙의 원인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책임도 있다는 인식이 대두되었으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도시노숙자 특별보호대책’을 수립하고, 노숙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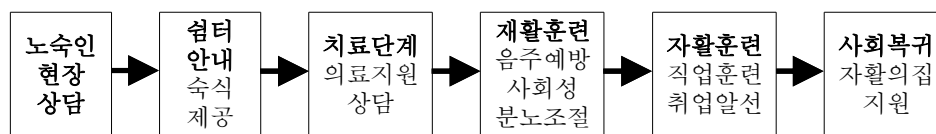
1. 행정지원

노숙인의 지원은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로 구분되며, 서로간의 업무역할을 분담하여 노숙인 지원의 활성화와 더불어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1) 정부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노숙인 지원사업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⁷⁾ 정부는 지자체와 민간단체(전국실직노숙인대책종교단체협의회 등)의 협력을 조정하고 효과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1999년 6,200명이던 노숙인 수는 2004년 12월말 4,466명으로 감소하였고, 노숙인 구호를 위해 종교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노숙인 보호시설(쉼터)을 운영하도록 하여 1일 2식의 무료급식(조·석식)과 숙소를 제공하였다. 또한 노숙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역 부근에 상담보호센터를 신설하는 등 전국 대도시 역 부근에 상담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림 2-2> 노숙인 종합지원 체계



출처: 서울 노숙인 정책토론회자료, 2007.

7) 사회복지 사업법 제34조 4항(개정2005. 1. 5)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의 설치·운영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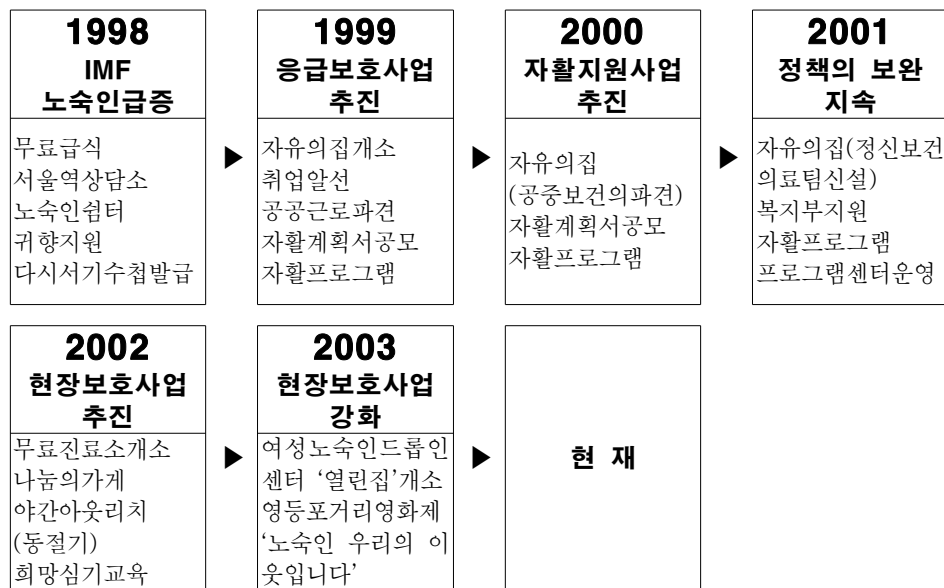
<표 2-8>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관련법	시설종류	세부종류		소관 부서
		생활시설	이용시설	
사회복지 사업법	종합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시설 결핵·한센시설	○부랑인시설 ○결핵·한센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보 건 복 지 가 족 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 2개 이상 아동시설이 혼합되어 있는 종합시설 설치 가능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 활시설 중 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주거)시설	○사회복지시설 중 이용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자활후견기관		○자활후견기관	
농어촌주민의보건복 지증진을위한특별법	복합노인복지시설	○농어촌지역에 한해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 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2종류 이상의 노인 복지시설을 동일 또는 인접건물에 설치가능		
모부자복지법	모부자복지시설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부·자 가정상담소	여 성 가 족 부
영유아보육법	보육시설		○보육시설	
성매매방지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시설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방지및피해 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 시설	○가정폭력상담소	

출처: 서울 노숙인 정책토론회자료, 2007.

노숙인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활공동체사업, 자립노숙인에게 거처를 마련해주는 ‘자활의 집’,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통해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림 2-3> 노숙인 지원정책의 흐름



출처: 서울 노숙인 정책토론회자료, 2007.

2) 지자체

서울시에서는 IMF외환위기 이후 노숙인 문제 정책이슈로 인지하여 개입하게 되었으며, 초기에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따라하는 수준에 있었다. 노숙인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보다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공공장소에서의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998년 7월 ‘서울시 노숙자 대책협의회’가 구성되면서 민간단체와 종교단체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인 노숙인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다.(박용찬, 2001:23). 최우선 순위의 노숙인 지원은 무료급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일이었으며, 더불어 의료서비스, 상담 등의 지원 사업이 펼쳐진다.

3) 자치단체

사회복지과내에 노숙인 업무를 담당자를 두고 노숙인 지원기관의 사업계획서를 검토, 프로그램, 계획서 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지자체(서울시)에 보고함으로써, 노숙인 쉼터시설 등 운영전반에 걸친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한다. 이와 함께 노숙인 지원시설의 예산집행, 공공근로참여, 취업정보제공 및 지도·감독역할을 통해 운영이 원활하도록 관리한다.

2. 재정지원

노숙인을 위한 재정지원은 정부의 예산과 노숙인 지원기관의 예산으로 나뉜다. 정부의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며, 지원기관의 예산은 지원기관에서 부담하게 된다. 노숙인 지원기관의 재정의 운용내역을 살펴보면 급식은 1일 2식(조식, 석식)을 기본으로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공휴일 포함)에는 중식을 포함하여 3식을 제공하고 있다. 1인당 지원하는 1식의 급식비는 '99년 920원, '02년 1,012원으로 '02년부터는 평일에도 중식을 제공하는 중식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09년 3월 현재 서울역주변기준 금요일 조식을 제외한 모든 식사지원이 실시된다. 노숙인 쉼터의 월 보조비는 매년 4,000,000원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운영단체에서 부담한다. 쉼터의 종사원은 사회복지사와 쉼터종사원으로 입소정원이 30명 이상일 경우 추가로 상담원이 추가로 배치된다. 쉼터종사원의 인건비는 정부에서 보조되며,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는 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표 2-9> 을지로주변 무료 급식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아침						▲역내 매월마지막 토요(6:00) 40명 을지로입구역	
점심	▲역내 거리의천사들 ①을지로3가역 1번 출구 (12:00) 50명 ②을지로입구역 (12:20) 100명 ③시청역(프레스센터입구) (12:50) 50명 ④종각 (13:00) 50명					없음	▲역내 거리의 천사들 월화수목금일 내용 같음
저녁	화요일 ▲역내 음성꽃동네 (20:00) 200명 빵과 음료						

출처: 서울 노숙인 정책토론회자료, 2007.

<표 2-10> 서울역 무료 급식표

	아침	점심	저녁
월	●소중한사람들(6:00) 650명	▲은혜교회(10:00)100명 ■나눔공동체(10:30)150명 ○한마음공동체400명 ○만나샘120명 ○소중한사람들120명 ■임마누엘선교회(14:00) 150명 ▼인보성체수녀회(15:00)	○브릿지센터300명 ○만나샘120명 ○다시서기센터200명
화	●예수사랑선교회(5:30) 300명 ○브릿지센터300명	▼인보성체수녀회(10:30) 주먹밥80명 ▼용산노숙자선교회(12:00) 250명 ○한마음공동체400명 ○만나샘120명 ○소중한사람들120명	▼음성꽃동네(21:00)간식 ▼명동성당까리타스회 (22:00)간식 200명(150명)동절기 ○브릿지센터300명 ○만나샘120명 ○다시서기센터200명
수	●예수사랑선교회(5:00) 300명	▼신생교회(11:00)600명 ○나눔공동체(11:30)100명 ○한마음공동체400명 ○만나샘120명 ○소중한사람들120명 ▲브엘세바교회(13:30) 200명 ▼인보성체수녀회(15:00)	○나눔공동체(18:00)150명 ○브릿지센터300명 ○다시서기센터200명
목	●예수사랑선교회(5:00) 300명 ○브릿지센터300명	▼주사랑복지교회(11:00) 50명 ▼용산노숙자교회(12:00) ○한마음공동체400명 ○만나샘120명 ○소중한사람들120명	●예수사랑선교회(18:00) 450명 ○브릿지센터300명 ○만나샘120명 ○다시서기센터200명
금		▲브엘세바(11:00)200명 ○한마음공동체300명 ○만나샘120명 ○소중한사람들120명 ▼인보성체수녀회(15:00)	●예수사랑선교회(18:00) 200명 ▼명동성당까리타스회 (22:00) ◎월드비전교회(23:00) 100명
토	●정동교회(7:30)200명	▲민족사랑교회(9:00)20명 ▼용산노숙자선교회 (11:30)200명 ○한마음공동체400명 ○소중한사람들120명 ▲나눔공동체(12:00)200명 ▲벤엘교회(14:00)300명 ▲여의도순복음교회청년회	
일	●소중한사람들(6:00) 450명	■서울역교회(10:00) ■용산노숙자선교회(10:30) ○나눔공동체(11:00)200명 ▼신생교회(11:00)600명 ○소중한사람들120명 ▼새꿈공원(12:30)50명 ▲브엘세바교회(13:30) ▲여전도회(16:00)100명	○브릿지센터300명 ○만나샘120명 ○다시서기센터200명

비고: ○실내급식, ▲구역사, ▼역광장, ■구름다리, ●우체국지하, ◎중앙지하

<표 2-11> 용산역 무료 급식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점심	하나님의교회(12:00) 130명 - 공원정자					용산노숙자선교회 (12:00)200명 굴다리입구	하나님의교회 (12:00)130명 공원정자

출처: 서울 노숙인 정책토론회자료, 2007.

<표 2-12> 기타지역 무료 급식표

평일	토요일/일요일
신대방 광성교회(6:00)200명 신림 제일교회(7:00)400명 사당온누리교회(10:00)130명 수원성교회(9:00)400명 가락시장(천주교)300명	독립문교회(6:00)50명(토요일) 새문안교회(6:00)200명(일요일)

출처: 서울 노숙인 정책토론회자료, 2007.

3. 자활지원

노숙인에게 다양한 자활사업의 참여와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위해 자활의 집(중간의 집)프로그램이 추진된다. 입주 기간은 기본 1년으로 건전한 생활을 하게 되면 1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2년 동안 입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노숙인 자활사업 중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된 숲 가꾸기 자활 영림단 및 산림작업단을 구성하여 현장에 노숙인을 투입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같은 작업에 참여하면 일당제로 급여를 받아 퇴소 후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저축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였다.

<표 2-13> 노숙인 상담보호센터

서울	노숙인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	식당, 세탁, 샤워, 진료실, 응급잠자리	대한성공회
	구세군 브릿지센터	취업알선, 상담, 이미용, 자활, 사례관리	구세군
	우리들의 좋은집	잠자리, 생필품, 의료, 쉼터연계	노숙인복지
	옹달샘드롭인센터	취업알선, 정기상담, 사례관리, 기타	고신총회
	영등포햇살보금자리	응급구호, 의료, 물품보관, 교통비	장로회

출처: 서울 노숙인 정책토론회자료, 2007.

<표 2-14> 노숙인 쉼터

24시간게스트하우스	광야교회	구세군북아현사랑방	구세군서대문사랑방
구세군충정로사랑방	두레쉼터	반석교회희망의집	비전트레이닝센터
생명의집	서계보현의집	성공회살림터	성수삼일내일의집
수송보현의집	가나안교회	십자가쉼터	아침을여는집
열린여성센터	영등포보현의집	행복한우리집	화엄동산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강동종합사회복지관	공릉종합사회복지관	구로노인종합복지관
노원노인종합복지관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녹번종합사회복지관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생명의전화종합복지관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서초종합사회복지관	성내종합사회복지관
수서종합사회복지관	신내종합사회복지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은평노인종합사회복지	은평종합사회복지관	장위종합사회복지관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청담종합사회복지관	평화종합사회복지관	풍납종합사회복지관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천재재활원희망의집	혜명노인센터	흔들회

출처: 서울 노숙인 정책토론회자료, 2007.

<표 2-15> 노숙인 지원기관(상담소)

서울	서울역상담소	귀향여비지원, 중간의집 입소안내, 의료지원, 취업정보제공, 의료, 식수, 상담제공	02-365-0386
	영등포상담소		02-2676-3727

출처: 서울 노숙인 정책토론회자료,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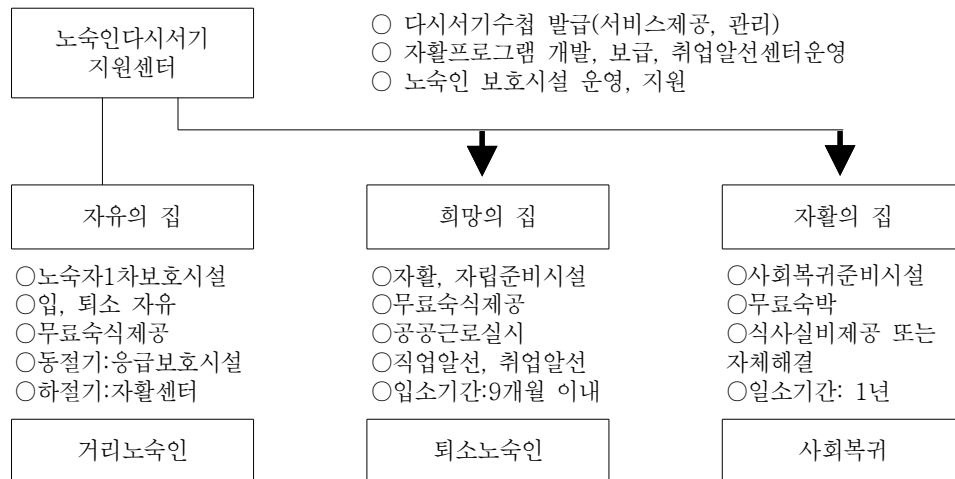
퇴소 후에는 일정기간동안 생활보호대상자로 구분하고, 미취업자에게는 취업 전까지 6개월간 공공근로를 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의료지원프로그램, 재활프로그램(알코올예방, 상담, 자활의집 운영, 노숙인의 이용편의 시설)운영 등의 지원을 한다.

<표 2-16> 서울시 취업지원 정책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참여인원	결과	비고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봉화 등 4개 지역 노숙인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참여	561명	149명 잔류	현지주민 민원발생
직업훈련	1998년 4월 ~ 12월	73명 참여	20명 이수	직업훈련 이후 취업 전망이 낮고, 동기취약
영종도신공항 건설사업	1998년 5월	53명 취업알선	1개월 이내 쉼터복귀	업체호응이 낮고, 고강도의 노동을 견디지 못함
정신교육	1998년 5월 ~ 7월	2,000명		2억 이상 지출된 1회성 행사였음

출처: 서울 노숙인 정책토론회자료, 2007.

<그림 2-4> 노숙인 관리 체계도



출처: 노숙자대책협의회, 2001.

1999년 1월 ‘자유의 집’ 개소를 통해 응급보호체계를 구축한 서울시와 서울시노숙자대책협의회 ‘종합적인 노숙인 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자유의 집과 희망의 집을 통한 응급보호정책은 지속하면서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응급사회복귀대책’을 시행한다(황운성, 2007).

노숙인의 귀향지원, 취업알선, 직업교육, 정신교육, 숲 가꾸기 공공근로 참여, 무료 전세임대주택(자활의 집)제공을 통해 서울시는 응급구호에서 사회복귀의 과정을 완성한다.

4. 외국 지원 사례의 시사점

노숙인 복지영역에서 자주 인용되는 미국과 영국, 일본의 노숙인 복지체계에 대해 살펴본다.

1) 미국

미국은 가장 많은 노숙인과 노숙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펴고 있다. 드롭인센터⁸⁾는 노숙인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주변의 종교단체 및 민간시설과 연계하여 응급서비스(잠자리, 정신과상담, 진료, 투약서비스

8) 우리나라의 상담보호센터에 해당하는 조직임

등)를 운영하고 있다. 드롭인센터를 이용하는 장기노숙인들이 사회복지제도의 수급자격을 득하면 사회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반에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노숙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저렴한 숙소에 거주하는 단신남성(SRO)⁹⁾노숙인, 여성노숙인, 모자가족 노숙인, 청년 노숙인들이 거리와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목격된다. 히스패닉계, 흑인을 포함한 사회의 소수자들이 노숙인들의 과반수를 점유하고, 탈시설화의 영향으로 정신장애인들의 거리노숙까지도 일반화 되었다.

당시의 미연방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주정부의 대책마련으로 충분하리라 판단 노숙인을 위한 쉼터와 식품제공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80년대 미국의 복지정책과 주택정책의 축소로 인해 노숙인의 증가를 불렀고, 레이건 공화당정부는 응급쉼터의 확보를 통해 수용위주의 대책이 마련된다.

1980년대 중반부터 노숙인 지원 단체를 중심으로 연방정부차원의 노숙인 문제 개입을 요구하고, 공화당의원 Stewart B. McKinney가 법령 제정한 매켄니 노숙인 지원법(The McKinney Homeless Assistance Act)이 제정되어 1990년대 들어 구체화 된다.

미국의 노숙인 지원 대책은 주택도시개발성(HUD: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보호의 연속성이 주된 특징이다. 지역사회의 각 부분들이 모여 노숙인 지원체계를 구성하고 연방정부, 주(州)정부, 자치체, 시민단체 등이 파트너십을 형성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80년대 후반 노숙인 주된 지원 대책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응급쉼터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클린턴행정부는 1993년 “노숙인상태의 악순환을 단절하는 연방계획”을 발표한다. 쉼터, 주거지원, 긴급생활지원, 건강지원 등의 여러 프로그램과 전략이 효과적인 노숙인 감소에 미비하다는 것으로 2000년 전국연합(National Alliance to End Homelessness)에서는 10년 내 ‘종결’시키는 방

9) SRO: Single Room Occurancy

법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다. 지역사회가 수행해야할 4가지 핵심전략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노숙의 유입구차단과 배출구확보, 주거와 서비스의 인프라구조 구축을 제시한다.

2) 영국

영국의 노숙인 지원은 17세기의 구빈법전통을 따르다가 1977년 주택법(Housing Act)을 통해 “노숙인 문제는 주거권 일반의 문제”라는 획기적인 인식전환을 가져온다. 노숙인 문제의 원인이 주택부족으로 많은 연구보고서가 나왔고, 노동당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1977년 주택법이 제정된다. 노숙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규정에 의해 노숙인의 판단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우선적으로 배분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노숙인(Deserving)과 자격이 없는 노숙인(Undeserving)으로 구분했다.

1980년 중반 이후 ① 노숙인의 특성이 변화 ② 단기문제에서 장기적인 문제로 ③ 단순문제가 아닌 복잡한 문제로 변화 ④ 노숙인 대책의 자원의 감소와 같은 벽은 노숙인의 욕구와 대응책 사이의 차이가 커짐에 따라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기가 되고, 이에 노숙인의 지원책은 방향의 전환이 논의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 1990년 거리의 노숙인을 근절하고자 “거리노숙인대책”(Rough Sleepers Initiative)이 3개년 계획으로 시행되었고, 이후 8년 동안 지속된다. 주요내용은 아웃리치(Outreach Service)의 확대, 호스텔의 확대, 주거확대를 위한 재정지원이다.

거리노숙인의 문제만을 전담하는 ‘거리노숙인대책반’이 구성되어 각종 정부의 지원재원을 조정하고, 민간단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통합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1997년 설립된 ‘사회적배제국(Social Exclusion Unit)’은 사회적 배제를 공략하기 위한 과제로 노숙인 문제 설정하고, 노숙인대책의 문제점으로 ① 분산되어있는 법과 제도 ② 책임소재가 다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담당부서 ③ 일관되고 통합적인 정책의 부재 ④ 쉼터의 절대적 부족 ⑤ 음주, 약물, 정신질환의 문제에 대한 대응책 미비를 들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표 2-17> 영국 주택법에 의한 노숙인 우선 지원 대상

구 분	내 용
우선지원이 필요한 경우	① 임신했거나 가족 중 임신한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 ② 부양해야 할 자녀와 같이 사는 사람 ③ 가족 중 1985년 주택법이 정한 취약한 사람이 있는 사람
취약자가 포함된 경우	① 고령으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사람 ② 학습장애가 있는 사람 ③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 ④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 ⑤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
기타사유	① 가정폭력이나 학대를 피해야 하는 어린이나 여성 ② 인종 학대를 피해야 하는 사람 ③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간주하는 청소년 ④ 약물, 알코올의존자, 흡소자, 에이즈와 같은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일부 지자체)

출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2002년 “노숙인위원회(Homeless Directorate)”를 창설하고 “홈리스법(Homelessness Act 2002)”을 전망한 “More than a Roof” 라는 새로운 전략을 발표한다. 주요내용은 노숙에 빠질 위험에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의 강화, 노숙상태의 해결을 위한 보다 많은 전략적 방법의 개발, 노숙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장려, B&B에 거주하는 아동을 포함한 가족노숙인의 감소를 위하는 것, 노숙인의 감소를 유지하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주거의 접근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2005년 ODPM¹⁰⁾에서는 “서포팅 피플 프로그램(Supporting People Program)”을 실시한다.

Supporting People Program은 ODPM에서 총괄하고, 교부금을 분담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프로그램의 운영을 책임지며, 서비스제공을 위해 민간단체 등과 계약을 맺는다. 약 6천개의 주택을 제공하고, 3만 7천명의 홈리스를 지원하고 있다.

10) ODPM(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부수상실)

<표 2-18> Supporting People Program의 지원 대상

● 노숙에 처한 사람 혹은 거리노숙인	● 출소하거나 감옥에 입소한 사람
● 가정폭력 위험에 처한 사람	● 알코올과 약물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 노인	● 10대 부모
● HIV와 AIDS환자	● 위험에 처한 청년
● 지원에 대한 욕구가 있는 가족노숙인	● 학습장애가 있는 사람
● 광범위한 사회취약계층을 포함	

출처: 남기철(2007), “노숙인과 사회복지실천”, p.238.

3) 일본

1990년대 들어 경제의 거품이 걷히면서 경제대국 일본의 이면에는 빈곤이라는 사회문제가 대두된다. 일본의 노숙인은 대부분이 일용노동자들로 기존 노숙인과 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한 사람, 병원에서 퇴원 후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다. 1992년 신주쿠역 서쪽출구에 300호 정도의 ‘상자집(단보루하우스: 段ボロハウス)마을’¹¹⁾이 만들어진다. 1994년 도쿄도는 문제의 해결보다는 한쪽 출구를 폐쇄하고 노숙인을 쫓아내고, 1996년 보다 강력한 철거작업을 실시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 1998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서울시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 거리의 노숙인의 규모를 줄이고 공공장소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노숙인들을 정리하는데 초점을 두고 ‘서울시 노숙자 대책협의회’가 시장 자문기구로 구성되어 정책이 시작된다.

2002년 8월 ‘노숙인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10년간의 한시적 입법으로 국회를 통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적절한 주거를 포함한 최저생활보장의무를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공원이나 거리 등 인간이 거주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서 노숙인이 부득이하게 기거하고 있다는 반성으로부터 국가 등이 지원을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담고 있다.¹²⁾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을 수행하는 생활보호법과 다른 점은 안정된 고용의 장 확보(제3조 1항 1호) 등 생활보호법에서 다룰 수 없는 정책을 실시하고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에 의무를 지게 한다는 점이다. 자립지원법

11) 상자집: 지하기둥을 중심으로 상자(종이박스)와 비닐 등을 이용하여 집 모양으로 만들어짐.

12) 노숙인 자립지원법 제1조, 제2조.

에 의한 자립지원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주거의 보장’, ‘취업의 보장’을 제시한다. 기존의 생활보호에서 배제되어온 노숙인에게도 생활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자립지원법 제3조 제1항 3호 ‘운용에 관한 건’)

노숙인 전국실태조사가 2003년 1~2월에 실시되어 ‘노숙인 실태에 관한 전국조사보고서’가 발표된다. 조사에는 노숙인 수조사와 생활실태조사를 이를 기반으로 7월 국토교통성과 후생노동성이 공동작성한 기본방침이 공표된다. 이 방침에는 노숙인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근로의욕은 있으나 일거리가 없어 실업상태에 있는 자, 둘째 의료와 복지 등으로부터의 원조가 필요한 자, 셋째 일반사회생활로부터 도피하고 있는 자이다.

5. 노숙인 지원정책의 문제점

노숙인 지원정책은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작되었다. 노숙인지원정책의 문제점은

첫째, 사전에 준비가 부족하였으며, 충분한 문제해결의 연구, 논의가 없었다.

둘째,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된 노숙인 지원정책은 거리의 노숙인의 수적인 감소만을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왔다. 노숙인의 삶과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이 아닌 공공장소를 점유함으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위한 것이 노숙인 대책수립의 기본이라는 점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거리에 노숙금지구역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음주와 입·퇴소를 자유를 보장한다는 ‘자유의 집’을 설치하는 것은 거리에서 보이지만 않는다면 좋다는 식의 발상은 문제의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는 전시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셋째, 노숙인 지원정책 과정에서 관련기관과 연구자, 활동가들의 주장이 협의나 논의조차 없이 진행되었다. 관 주도의 정책수립 및 집행의 결과가 바로 ‘거리에서 노숙인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정책을 낳았고(남기철, 2006:24), 이러한 정책은 일시적이며, 비체계적으로 노숙인복지정책의 한계

성을 찾아볼 수 있다.

넷째, 연구자, 활동가들이 주장한 쉼터의 다양성이나 특성화의 제안을 무시한 채 전반적으로 획일화되었다. 노숙인의 30~40%가 알코올이나 정신질환과 같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있는 쉼터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쉼터에 대한 지원역시 수용노숙인의 머릿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도 아쉽다.

다섯째, ‘노숙인보호의 연속성’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거리에서 초기응급 보호에서 사회복지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고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노숙인복지정책의 체계가 완전할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숙인 지원에 대한 제도화는 이루어졌지만 최근 사회적관심의 감소는 노숙인 복지 분야의 역동성이 감소된 채 현상유지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신원우, 2007:21)도 등장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은 과감한 노숙인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 적은 예산을 투입하여 노숙인의 자활성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현재 노숙인복지정책의 담보상태를 유지하는 원인이므로 일정기간 적극적인 예산투입을 통한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거리-상담보호센터-일시적인 주거-불안정주거-재 노숙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노숙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건설교통부가 매입한 임대주택 200호 외에도 자활의 집 추가 설치 및 도시개발공사의 임대주택확보 등의 주거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노숙인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민관의 협력기구의 재구성을 통해 민간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인다. 관주도의 일방적인 정책추진과 예산권자(갑)로 민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노숙인복지정책의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여섯째, 노숙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시설운영 규칙만으로는 노숙인 자활지원까지 내용을 포함할 수 없어 한계성을 나타

낸다. 이에 노숙인 지원 법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정책목적에 맞는 예산이 편성과 집행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함이 시급하다.



제 3 장 성서적 관점으로 보는 노숙인

본 장에서는 기독교(성서)는 노숙문제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구약과 신약성서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제1절 구약성서의 노숙인 고찰

구약성서에 의하면 인간은 시작부터가 노숙으로 시작되었다.

1. 창조

1) 노숙인의 원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세기1:26-28).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심으로 그의 앞에서는 만민이 다 귀중한 존재이며,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완전한 집에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축복하셨다. 그러나 은신할 일정한 거처를 마련해 주셨다는 기록은 없다.

2) 인류의 첫 노숙가정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창세기3:23-24).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 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창세기3:22-24).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므로 낙원에서 쫓겨난다. 그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노숙을 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래도 그들은 실직노숙인은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는 일 자리를 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보수를 얼마나 받았는지는 아직도 아는 이가 없다.

‘정복하라’는 단어는 원래 ‘청지기(Steward/Custodian)’를 의미한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지키고, 돌보라는 책임을 주신 것이다. 첫 가족은 자신들에게 주신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완전한 집으로부터 쫓겨나므로 인류의 첫 노숙이 시작된다.

3) 인류의 노숙생활 시작

태초에 우리인류의 조상들은 노아의 때에 있었던 홍수심판이후 동방으로 옮겨가다 시날 평지에 거하던 중(창세기11:2). 바벨탑을 쌓을 것을 결의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허용치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고 했다(창세기11:7-9). 또다시 인류는 안정된 생활에서 부랑인이 되어 노숙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흔히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켜 말하기를 하늘 높은 줄 모른다고 한다. 인류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을 우리는 성서에서 발견한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창세기11:4).

하나님이 하늘을 궁창이라고 하셨다(창세기1:8). 궁창이란 일종의 대기권을 말한다. 끝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고대히브리인들은 높은 산들에 의해 궁창이 지탱되어 거기에 달과 별들도 붙어있고 하늘위에 물(비, 눈)이 저장되었다고 믿었다. 과학이 발달한 현대인들이 볼 때 얼마나 우스운 생각인가? 땅위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인류의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그들

의 머리에서 생각해낸 것이 성과 대를 쌓되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하나님처럼 드러내보자는 허무맹랑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에 의해서 흠어지게 되었고 언어가 혼잡케 되어 오늘 날 우리 후손들이 언어의 장벽으로 고통을 받게 된 것이다.

2. 이스라엘의 노숙생활

1) 노숙인으로 시작된 히브리인

“테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테라는 나이가 이백오 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창세기11:31-32). 테라는 믿음의 조상이자 히브리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부친으로서 그는 가족들을 이끌고 무작정 방랑의 길을 떠났다. 인생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하는데 당시의 테라 부부는 무작정 고향을 떠나 하란에서 살다가 죽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께서 테라의 아들인 아브람에게 나타나 하란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 히브리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족은 또 다시 유랑민으로서 노숙생활이 시작되었으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돌아가 정착하게 되었다. 노숙생활이 반드시 불행한 것만은 아니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 말씀의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땅에 들어갔더라”(창세기12:1-6).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나라와 정착지가 없는 유랑민으로 출발하였다.

2) 애굽에서의 노숙생활

은 이십에 이복형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을 시작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다. 그 지역의 기근으로 곡창지대인 애굽은 주변에서 곡식을 사기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강한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며, 후대에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와 히브리인들을 억압하고 종살이를 시키게 된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라, 집도 없는 억압받는 노숙인들이 된다.

3) 출애굽(노숙의 근절)

히브리인들이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의 정착한 지 여리해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출애굽기2:23-25)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달프게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해내시려고 땅에 내려 오셨다. 돌아갈 집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Promised Land)이 그들의 영구한 집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모세를 통해 해방시키셨다. 출애굽사건은 구약에서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사건으로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노예와 노숙생활을 끝내는 해방 사건이 된다.

4) 광야생활 : 노숙생활

출애굽을 통해 광야에서의 생활이 시작된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며, 사람의 손이 가지 않은 황무지와 다름이 없다. 광야는 황폐, 추방, 위험, 죽음 등 예측불허의 땅으로 샬롬(Shalom:평화), 낙원, 약속의 땅과는 반대되는 개념이 된다. 노예생활에서 벗어나 해방은 맞았으나 이것은 긴 광야의 노숙생활이 시작된다. 그러나 그들의 광야생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민으로서의 훈련장이었다.

5) 가나안 입성(노숙의 근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신명기6:10-11)

땅과 집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로 노숙을 근절하는 사건이다

3. 구약시대에 노숙인이 된 사람들

1) 아담과 하와부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므로 두 사람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최초의 노숙인이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네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창세기2:16-17)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 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창세기3:22-24)

2)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로 어느 날 사래가 남편 아브람에게 자신의 여종인 애굽 여인 하갈을 씨받이로 하여 자기들의 후손을 삼을 것을 제안한다. 이에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여 마침내 하갈을 임신하게 한다. 그러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다. 그것은 사래의 여종 하갈이 자신이 종의 신분임을 잊고 자식을 잉태하지 못하는 주인 사래를 멸시하였던 것이다(창세기16:4). 이로 인하여 잔잔하였던 가정에 풍파가 일기 시작한다. 두 여인의 사랑다툼이 일어나는 것이다 사래는 가정불화의 원인을 남편 아브람의 탓으로 돌렸고 두 사람은 자주 다투게 되었다 결국 아브람이 조강지처인 사래의 손을 들어주었고 남편의 애정을 확인 한 사래는 하갈을 학대하는 고로 하갈은 주인의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사래의 앞에서 도망하여 노숙자 신세가 되었던 것이다(창세기16:6).

무엇이 하갈을 노숙의 생활로 내몰았던가? 임신을 빌미로 자신의 주인인 사래를 제치고 자기가 아브람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안방마님이 되려고 했던 욕심과 주인인 사래를 멸시했던 교만은 그녀를 노숙자 생활로 들어서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와의 사자의 위로를 받고 “여호와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창세기16:9-10). 그녀는 다시 주인 사래에게로 돌아와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다.

그 후 사래도 아들이사를 낳는다. 아브람과 사래의 기쁨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래가 보니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어린 이사를 희롱하며 괴롭히는 것이었다. 전통적 해석에 따르면 이스마엘이 어린 이사를 억압했다는 것이다. 그 일로 인하여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는 쫓겨나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을 해야 하는 노숙자가 된 것이다(창세기21:9-14).

3) 에서의 동생 야곱

형 에서의 장자 권을 탐내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형 에

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기도를 야곱이 받는다. 나중에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자신이 받아야할 축복기도를 동생 야곱이 가로챈 줄 알고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고 자기가 다시 축복 권을 되찾겠다는 결심을 한다. 에서의 이런 감정을 알아챈 어머니 리브가가 작은 아들 야곱을 밧단아람에 있는 친정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게 한다. 그 일로 인하여 야곱은 노숙생활을 체험하게 된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흰 돌을 취하여 베개 하여 누워 자더니”(창세기28:10-11).

4)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히브리인이면서 애굽왕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입적되어 그가 대궐에서 40세까지 장성하였는데 어느 날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인 것이 탄로가 되어 살인범으로 몰려 애굽을 도망쳐 나가 그는 하루아침에 ‘동가식 서가숙’을 하는 노숙인이 된다. 왕자의 신세가 이게 웬 말인가? 그러나 모세는 그것이 계기가 되어 훗날에 이스라엘민족의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 “바로가 이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곁에 앉았더라”(출애굽기2:15).

5) 예언자 엘리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합왕에게 가서 가뭄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즉시 아합왕을 떠나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숨으라고 명하여 엘리야 선지자가 그대로 함으로 도피생활을 하느라 노숙인이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머물러서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냇물을 마셨더니”(열왕기상17:2-6).

이세벨왕비의 보복을 피하여 노숙인이 된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

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것을 아합이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 곳에 머물게 하고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렘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6) 교만하여 노숙인이 된 느브갓네살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브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 때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브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브갓네살에게 응하므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의 발톱과 같았었느니라”(다니엘4:28-33)

큰 나라 바벨론 제국을 세운 느브갓네살왕은 바벨론 제국을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고 자랑하고 뽐내다가 백성들로부터 쫓겨나 들판을 전전하는 노숙인이 된다.“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언16:18).

7) 과부와 고아들

과부와 고아들은 노숙인에 해당하는 삶을 살았다. 희랍어로 과부를 의미

하는 ‘Chera’ 는 ‘버림받다’라는 뜻의 어원을 가진 단어이며, 히브리어로 과부는 병어리와 비슷한 의미로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신의 벌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40년 동안 무수한 전쟁을 겪었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와 들어가서도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싸워야 했다. 앗시리아와 바벨론과의 전쟁, 사사기에 기록된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들은 이스라엘 땅에 수만 명의 남자들이 죽었고, 이스라엘 땅에는 수많은 과부와 고아들이 생겨났다.

4.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노숙상태로 쫓아내신 원인

당시의 예언자들은 야웨가 세우신 유일한 통찰력이었고, 길잡이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노숙상태가 될 것을 선언했다. 이스라엘이 노숙인으로 쫓겨나는 몇 가지 이유는 우상숭배와 배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착취와 억압, 탐욕과 사치, 정치·종교적 부패로 인한다.

1) 우상숭배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네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서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예레미야 6:16).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이사야2:8).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

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호세아1:2-3).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에스겔20:31).

2) 가난한 사람과 선지자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

사마리아의 왕 아합은 그의 아내 이세벨과 가난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누명을 씌우고 돌로 쳐 죽인다(열왕기상21:1-16).

“여호와와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흘린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핏거리라 하였다 하라”(열왕기상21:17-19). - 엘리야의 사형선고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삷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야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 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 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예레미야22:13-19). - 예레미야의 사형선고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의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밭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굶은 배로 허리를 동이

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 하듯 하게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아모스8:4-10). - 아모스의 사형선고

3) 탐욕과 사치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이사야2:7).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이사야5:8).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이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와 말씀이니라”(이사야5:27-30).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미가2:2).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아모스6:4-7).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엮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아모스7:17).

4) 정치, 종교의 부패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와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성과 하솔과 므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열왕기상9:15-16).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되었더라”(열왕기상9:21-22).

권력을 우상화하며, 정치적 야욕이 가장 크고, 부패한 솔로몬 왕은 자가 얻은 땅을 자신의 마음대로 하였으며, 백성들의 원성과 땅을 선물로 주신 야웨¹³⁾의 주장도 무시하였다. 많은 관리를 두어 자신을 섬기게 하였고, 많은 아내를 두었으며, 우상을 숭배하여 주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샅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시더라”(미가3:9-12).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호세아9:17).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뱀엘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녕 망하리로다.”(호세아10:15).

13) 야훼(Yahweh):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

제 2 절 신약성서의 노숙에 대한 고찰

성서에는 ‘노숙(homeless)’이란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가난’과 노숙상태와 관련된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가난한 사람과 노숙인은 차이는 있으나 발생 원인이 되어 큰 틀에서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신약에서 예수그리스도와 노숙문제를 고찰해 본다.

1. 노숙문제가 발생하는 사회현상

주전 63년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합병하면서 정치, 경제적으로 심각한 부담을 가져왔다. 당시 팔레스타인 사회는 2개의 상부와 하부계층으로 상부 10%를 제외한 90%는 농업에 기초하는 가난한 농부로 그들은 지배받고 억압당하는 그리고 천시 받는 백성들이었다.

갈릴리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중심부였고, 갈릴리의 인구분포는 다수의 노예들과 헬라의 문화를 수용한 유대인들이 포함한다. 교육의 수준이 낮고 율법의 세부내용에 대해 이해가 없었다. 갈릴리의 중심지는 나사렛으로 예수의 고향이다. 가난과 불평등, 차별대우, 임대료, 세금 등은 폭동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발전한다.

로마의 군대는 주기적으로 마을사람들을 살해하고 약탈하였으며 수천 명이나 로마로 끌고 가 노예로 팔았다. 이에 민중봉기가 4년에 걸쳐 발생하고 로마와 유대사이에 2번에 걸친 전쟁이 일어난다. 로마는 주후 135년 예루살렘을 파멸시키고, 유대를 평정한다.

팔레스타인에서 성전의 영향력은 지대하였다. 상품과 서비스, 곡물, 동물 등 모든 것은 성전으로 모여 재분배되었으나 가난한 생산자에게는 대가가 충분하지 못하였다. 성전에서의 상품거래는 부패가 심하여 최종 구입 가격이 생산자는 구입할 수 없는 가격으로 변하고 더 이상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다. 성전은 도둑의 소굴로 전락하였고, 대체사장은 도둑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며, 가난한 서민은 성전에서 노숙인의 대우를 받는다.

로마의 과세제도는 율법에 나와 있는 십일조와 다양한 세금을 포함할

경우 일 년에 약 20%에 이르는 세금을 거둬들였다. 가난한 농민의 경우에는 유대와 로마의 세금을 합하면 약 35%에 달하고, 로마의 세금징수 방법은 ‘세금징수청부인들’에게 징수권한을 팔아넘기고, 징수권한을 산 유대인들은 로마가 정하는 세금보다 이상을 거둬들여 나머지는 착취한다. 일부 농부들은 수확한 소득 중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재산(집, 전답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일이 생기고, 세금 징수 자들과 재산권을 가진 자들은 토지 등을 빼앗는 일이 발생한다.

그 결과로 가난한 농민들 중 삶의 터전을 빼앗긴 사람들은 일용노동자 또는 떠돌이 생활 등으로 목숨을 부지하며 그 사회의 노숙인이 된다.

가부장제도는 가정에서 가장(남성)이 가지는 권한을 인정하고 강화해주는 법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로 여성의 지위를 부정하고 아버지와 남편의 소유, 부양가족으로 취급한다. 딸이나 아내는 어떤 의미에서 사유재산과도 같은 소유물로 전락한다는 사실이다. 사회전반에 걸쳐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은 끝없는 억압과 폭력에 대항할 수 없는 가장 밑바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정결제도는 음과 양처럼 선을 그어 극단적인 범위로 구분하는 제도로 정결한 사람과 부정합 사람, 의인과 죄인, 온전한 사람과 온전하지 못한 사람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유대사회에서 이방인은 대표적인 부정합 사람으로 자신들의 순수성을 더럽히는 개와 같다고 생각하여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가난한 농부와 같은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여 율법을 지킬 형편이나 자격이 되지 못하였으나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하여 죄인 시 하는 것이 성행한다. 예수께서 사역하시면서 살피신 장애인, 나병환자, 정신병자, 중풍병자 등의 일부는 그 당시의 노숙인 이었으며 정결제도 하에 정결하지 못하다 비난 받았던 많은 사람들도 노숙인들이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오늘날 우리사회의 노숙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개입의 기초가 된다. 예수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대하여 말씀해주셨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서 거론되는 이들이 곧 오늘날의 노숙인이요 우리 자신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인자가 자기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너희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 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께 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 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 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 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25:31-36).

예수그리스도의 이러한 가르침은

첫째, 이웃의 고통이 곧 예수님의 고통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으므로 이 땅의 인간들의 삶과는 무관하리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해주듯이 예수님께서서는 비록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상태에 계실지라도 이 땅의 모든 성도와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동행 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우리는 고통 받는 이웃을 볼 때 무관심하고 냉정한 태도로 보지 말고 고통당하는 주님을 보듯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통이 그들의 배고픔이 그들의 목마름과 그들의 눈물이 예수님의 고통이요 배고픔이요 목마름이자 눈물이라는 것이다. 성경은 기록되었기를 “그들에게 한일이 곧 내게 한 것이요”(마태복음25:40). 또한 “그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 이니라”(마태복음25:45).

둘째, 남을 도울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다 노벨상을 바라고 하는 연구는 절대로 노벨상을 탈수가 없다 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도 하늘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선행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는 타산적인 마음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고 그 자체마저도 잊어버려야한다. 성경에 기록된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한일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셨다(마태복음25:34-40).

셋째,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큰 죄악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원편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을 향해 저주 받은 자들이라고 하시며 그들에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 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셨다(마태복음25:41-43).

프랑스와 같은 나라에서는 만일 지나가는 사람이 위기에 빠진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면 그런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규정’ 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웃의 고통을 냉정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 혈통으로 지으

사 우리 모두에게 가족과 같이 서로를 돌볼 책임을 부여하셨다.

넷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곧 자기 삶의 성적표라는 것이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타적인 삶을 얼마나 살았느냐가 심판의 기준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또 자기를 청한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누가복음14:12-14).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하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야고보서2:14-17).

예수그리스도는 열두제자 가운데 한 사람(가룟유다)에 의해 버림받고 팔리게 되어 가장 잔인하다고 하는 십자가형에 처하여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시며 최후를 맞으신다. 성자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다. 반면 성부의 가장 큰 고통은 아들의 죽음으로 두 분 모두 자신을 비웠고 고통당하셨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누가복음23: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누가복음23:43).

십자가는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다. 제자들이 예수그리스도를 버렸을 때도 그는 자신을 버린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그의 원수가 그에게 해를 가했을 때도 그는 가해자를 사랑하셨다. 자신을 죽인자도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과 악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부활은 보여주고 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억압받는 모든 가난한 사람(노숙인)들, 힘들어 하는 사람

들을 대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실현한다. 예수그리스도는 고통 받는 사람들의 희망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결속을 다졌으며,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노숙근절을 몸소 실천하셨다.

3. 예수그리스도의 하신일

로마의 폭력에 유대인의 끊임없는 대립은 유대 땅을 황폐한 곳으로 만들던 때에 의식 있는 한 젊은이로 해야 할 일을 위해 광야에 나가 40일 금식하면서 준비의 시간을 가지셨다. 자신의 할 일과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당시의 많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강력한 힘인지, 정치적 지도력인지, 명예나 물질인지 등과 숙고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신다 (마태복음4:1-11).

곧 다가오는 십자가, 죽음으로 강하게 세상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사렛을 떠나 혼잡한 상업도시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시고,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셨다. 나사렛사람들은 신학적으로 폐쇄적인 고립주의가 팽배하고 메시야가 자기들 가운데 나올 것이라 믿었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어 다른 그룹은 전부 이단으로 생각했다. 예수그리스도는 보다 포괄적이고 다원적인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서 자신의 성장기 체험과는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신다.

예수그리스도를 쫓는 이들은 가난한 사람, 노숙인, 병든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예수는 이 땅의 모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들 가운데 다가오는 미래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발견하셨다.

희년(禧年)¹⁴⁾을 선포하셨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눈먼 사람에게 빛을 보게 하시며 억눌린 사람은 자유를 주셔서 모든 슬픈 것들이 반전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신다. 희년의 소식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을 벗어나게 하고 노예가 된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며 땅을 빼앗긴 사람은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만들었다. 이로 인하여 더욱 예

14) 희년(Jubilee): 노예, 토지, 가난한 자의 빚을 사면하고 해방시키는 위대한 해로 노예가 된 인간과 빚 때문에 빼앗긴 땅과 자체에 관해 모든 경제적 사면을 말한다.

수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따르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선포되었고 세상에
서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 가운데 시작되었다. 가난한 사람, 노예, 가장 낮
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억압이나 멸시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동등한 존엄성을 지닌 주체가 된다. 그러므로 희년의
선포는 노숙의 근절로 이해할 수 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
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들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삭개
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을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
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
려 함이니라(누가복음19:1-10).

예수그리스도는 부자의 노숙을 근절하는 일도 하셨다. 세리장 삭개오는
지역의 부자였으나 세리에 대한 미움과 인식은 삭개오의 영적인 가난의
상태로 그는 인간관계에 있어 노숙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예수를 영접한
삭개오는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부정하게 빼앗을 것이
있다면 그 갑절을 갚겠다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는 바리새인들의 질
문에 예수그리스도는(마태복음19:16-26)(마가복음10:17-27)(누가복음10:25-
37)에서 다음 두 가지의 비유로 응답하셨다.

낙타와 바늘귀 이야기 -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 자 할진대 가
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마태복음19:21), 그 청년이 재
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
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

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마가복음10: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 (누가복음10:25-37)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누가복음18:18-30)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아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가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두 가지 이야기에서 영생의 구원(Coming Home)을 구할 때,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 그리하면 너는 하늘의 보화를 얻으리라 그 후에 나를 따르라 하셨다. 재물의 지배를 벗어나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를 거절한 율법사 영적인 노숙으로 빠져 들어갔다. 자신들의 재산을 끌어안고 영원히 하나님의 집을 잃어버린 노숙인이 되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마태복음4:23-25).

“벧새다에 이르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손대

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마가복음8:22-25).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매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매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겹옷을 내버리고 뛰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마가복음10:46-52).

이처럼 온 갈릴리를 다니실 때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은 예수그리스도 주변에 몰려들었고, 예수께서는 많은 병자와 장애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요한복음9:1-8),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마가복음1:40-45), 중풍병자(마가복음2:1-12),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다(마태복음9:32-34), 귀신들린 사람을 고치시다(마가복음5:1-20),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을 고치시다(누가복음4:31-37),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치시다(마가복음5:25-34),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시다(누가복음13:10-17),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다(마가복음3:1-5),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마태복음27:14-18),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다(마가복음6:21-24),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요한복음11:1-44),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다(누가복음4:38-41) 이처럼 많은 노숙인들을 치유하시고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에덴동산으로 시작하여 새 하늘과 새 땅(새 예루살렘)으로 끝을 맺는다(창세기1:1-2:23, 요한계시록22:1-5).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에덴동산에서 계획하셨던 평화가 존재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부자, 가난한 자, 십자가, 박해, 이중과세, 노예, 살인, 전쟁, 질병, 눈물, 죽음, 노숙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구원은 모든 치유의 핵심으로 사람들의 몸과 영혼(마음)을 포함하는 노숙생활의 종지부를 의미한다.

제 3 절 노숙인의 기독교적 사회적응 대안

우리나라에는 기독교인이 약 1,100만 명이 있고, 교회의 수는 5만 3천여 곳이 되며, 목사의 수는 약 6만 5천여 명으로 통계조사 되었다.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로 알려져 있으나 오늘날 많은 현대교회들이 노숙인 사역에는 부진한 실정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노숙인 사역을 하면서 느낀 점은 많은 교회들이 노숙사역(노숙선교)에 있어서는 진심이나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는 목회자의 수가 매우 적었다는 사실이다. 교회의 몸집만을 키우는데 전념하거나 해외선교, 지역선교를 통해 교회의 홍보에 치중하는 모습들을 쉽게 찾아보았다.

2007년 기독교신문과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성도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6명은 교회의 신앙과 삶의 불일치를 지적하였다. 오늘날 현대 교회는 심각한 위기 속에 정체성을 잃고 영향력마저 약해지고 있다. 점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은 그들이 믿음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실망하였다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하다 생각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한일서4:7-8).

예수그리스도의 선교가 단순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이 아니었다. 가슴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영혼의 새로워짐으로 결국 구원을 통해 빈곤과 노숙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정부와 봉사단체에서 노숙인들에게 밥을 먹이고 옷을 주는 것은 노숙상태에서 약간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것이지 근본문제를

의 해결은 될 수 없다는 것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1. 왜 기독교적 사회적응 대안인가?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사회의 진정한 노숙인은 바로 사회의 가난한 자와 병자와 정신질환자와 장애인과 나그네 된 자와 고아와 과부, 환란을 당한 자, 억압받는 자 등 이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다루지 아니하셨다. 사회의 문제로 공동의 문제로 삼아 부유한 자와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잘 보살펴 줄 것을 강조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돕는 자들에게는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을 멸시하거나 무관심하거나 학대하거나 인색한 자에게는 저주와 화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퍅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 칠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 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 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신명기15:7-11)

“또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주린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라.”(이사야58:7-11)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잠언14:31-32)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잠언17:5)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잠언19:17)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잠언21:13)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 곰 같으리라.”(잠언28:15)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체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잠언28:27)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잠언29:7)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잠언29:14)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잦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잠언3:27-28)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잠언11:25)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잠언14:21)

또한 노숙인은 그들만이 아니었다. 당시 사회의 약자들이었다. 오늘날의

IMF나 경제위기와 같은 갑작스런 사회적 재난이나 재앙으로 또는 개인의 실패로 환란을 당한 자나 빚진 자나 마음이 원통한 자들도 이에 포함되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또한 이들을 통하여 그 시대를 이끌어 가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도 하셨다.

그 대표적인 공동체가 구약성서 중에 나오는 아둘람굴에 모여서 다윗을 중심으로 세력을 이루고 마침내는 다윗왕국을 세우는데 중심세력이 되었던 아둘람 굴의 공동체가 있었다. -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가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자가 400명 가량 이었더라” (사무엘상22:1-2).

그들은 처음에는 400명쯤 모였으나 나중에는 600명이 되었고 그 숫자가 증가하여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그 당시 그들은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인생들이요 개인적으로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쁨 부어 세우신 훌륭한 지도자인 다윗을 만나 그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다윗의 신앙과 지혜와 인격과 용기와 사랑을 통하여 신앙이 생기고 인격이 바뀌고 용기가 생기고 서로가 사랑하게 되고 큰 비전을 갖게 되자 그들은 어느새 강력한 군대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들은 때로는 사울의 군대와 전쟁을 하였고 블레셋과 아말렉과도 전쟁을 하였다. 그 때마다 그들은 다윗과 함께 큰 승리를 하였던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다윗왕국을 세우는데 일등공로자들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훗날 다윗과 함께 영화를 누렸다.

이러한 예가 신약에도 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던 제자공동체였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부자들이나 지식인이나 권력가들이 아니었다. 당시 그들은 사회적으로 천민들이었다. 대부분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사는 어부들과 가난한 자들이었다. 그들 중에는 마태(레위)와 같은 세리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수입이 낮은 빈곤층의 사람들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가 예비 노숙인 이었던 것이다. 이렇다 할 만한 온전한 사람이 없었다. -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
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 하지 못하게 하려하심이라”(고린도전서
1:26-29)

그러나 그들이 훗날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잘 훈련되어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는 복음 전도의 주역들이 된 것이다. 당시 로마제국
은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였으나 기독교는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로
마를 정복하여 마침내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
교로 승인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서 그 인생의 성공 실패가 달렸고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행복과 불
행이 결정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현실이 불행하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
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다윗을 따랐던 아들
람 굴의 공동체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공통점은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다. 오늘 날도 노숙인의 삶이 비참하고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다면 그들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 것이다.

사회는 노숙인들을 게으르고 무가치한 자라 하여 외면할 지라도 교회는
그들 속에서 무한한 가치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한다. 그리고 그들에
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족처럼 형제처럼 섬겨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
다. 세상 적으로 볼 때 그들은 버려진 자들이요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소망
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한 자들로 보이지만 기독교적 관점으
로 볼 때는 그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채 버려진 자원인 것이다. 버려
진 폐자재만이 재활용품이 아니라 이시대의 노숙인들 이야말로 훌륭한 재
활용품이란 생각이 든다.

2. 노숙인사역을 하고 있는 신생교회의 적응대안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이자 구원의 종교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복된 생활을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교리는 타종교에도 많이 있다. 이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타종교의 없는 것이 기독교에는 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를 통한 구원교리이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오염되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그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인류의 죄 값을 그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하였다고 한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축복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그 복은 우리가 살았을 때에 일로 끝나는 것이지만 구원은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강조점은 축복이 먼저가 아니요 구원이 먼저이며 축복보다 구원이 더 소중하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고찰해 보았을 때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죄로부터의 구원을 강조하셨다.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 선생님이여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묻는 부자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그러나 그 부자는 재산이 많은지라 근심을 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했다. 그 부자는 구원보다 행복을 원했고 내세보다 현세를 더 중하게 여겼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다.

오늘 날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데려온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는데 먼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죄가 사해 졌느니라” 고하셨다.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수군거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셨다. 내가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한 것은 죄 사함이 치료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이미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을 끝내신 후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걸어갔다고 했다. 이 같은 사실로 볼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먼

저 그 환자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한다는 것이다. 그 근본 문제부터 해결하여주면 그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다.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시간이 되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앓은뱅이가 두 사람에게 구걸을 요청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돈으로 구걸을 해주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홀로 설 수 있게 해주었다. 앓은뱅이를 일어나게 했던 것이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밋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라”(사도행전3:6-10). 베드로와 요한은 평생을 거지로 살아야할 앓은뱅이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한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인간의 근본부터 해결해 주었던 것이다. 만일 베드로와 요한 역시 앓은뱅이에게 구걸만 해주고 갔다면 그 앓은뱅이는 약간의 도움을 받았을지 몰라도 평생을 걸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오늘 날 치료받아야 할 노숙인 들이 우리주변에 많이 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허기진 배를 채워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일자리가 없는 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사고를 바꾸어주고 그들의 헐벗고 주린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다. 어느 날 예배 후에 500여명의 노숙인 성도들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가 거의 끝나갈 때 쯤 노숙인 하나가 급히 오더니 밥을 달라고 했다. 그러나 그가 밥을 달라고 할 때는 이미 밥이 떨어진 상태였다. 배식을 마친 한 봉사자가 그에게 통명스런 말로 어디 갔다 이제 왔느냐 일찍 좀 오라고 했다. 그러자 그 노숙인이 오히려 화를 벌컥 내면서 여보슈 말 좀 곱게 할 수 없어? 내가 배가 고파 왔는줄 알아? 마음이 고파왔수다 봉사를 하려면 똑바로 해 하고는 치사하다는 듯이 황급히 사라졌다. 노숙인들 중에는 육신

의 배만 고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프 이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노숙인 정책이란 노숙인들을 관리를 해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자신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탄탄한 정신력을 키워 주고 파괴된 인격을 치유시켜주고 그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주는 일이다. 물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덜 중요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치유와 지원이 먼저 선행 되어야 어느 순간부터는 그들 스스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주고 심령의 고통을 치료할 수 있는가? 기독교는 고유의 치유약이 있는데 그것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과 구약 성경을 말한다. 그 말씀이 곧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혼과 영까지도 치료가 가능한 것이다. -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히브리서4:12). 우리 하나님은 이세상의 의사들도 감당치 못하는 치료까지도 가능하신 분이다. 노숙인들이 80퍼센트가 알코올중독자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돈과 일자리가 필요하겠으나 먼저 그들에게 선행되어야 할 것은 술을 끊게 하는 일이다. 그들이 술을 끊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직장도 많은 수입도 도움이 안 된다. 그들은 수입이 생기면 무조건 술을 마셔야한다. 알코올중독자의 생리상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기에 금주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알코올중독자들은 의사들조차 어찌할 수가 없어서 손을 든 실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공동체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성구 암송을 시켰더니 그들 중에서 술을 끊고 새 생활을 찾은 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 중에 사회로 복귀하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나왔고 신학을 공부하여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도 나왔다. 그 밖에도 알코올중독에서 벗어나 취업을 하고 있는 자들 또한 여럿이 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신생교회 이야기이다. 신생교회에는 성경말씀 공부를 통하여 신앙으로 술을 끊어주고 노숙인들에게 새 삶을 출발시켜 주는 교

회이다. 서울역광장에서 천막을 지붕삼고 아스팔트 바닥을 마루삼아 주일과 수요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린다. 예배인원은 약 500-600명이며, 예배 때는 설교를 듣기 전에 온 교우들이 함께 복음을 외치며 외침전도를 한다. 그리고 예배순서 마지막 폐회송 부르기 전에 금주구호를 외치며 금주운동도 한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술은 마약입니다. 마시지도 말고 권하지도 맙시다. 당신이 마시는 술은 가족들의 눈물이요 형제들의 고통입니다. 웬수같은 술을! 웬수같은 술을! 웬수같은 술을! 끊어버립시다! 끊어버립시다! 끊어버립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사람답게 삽시다.”** 어떤 이들은 지나가면서 우리교회를 무료급식소로 착각을 하기도 한다. 신생교회는 무료급식소가 아니라 밥상공동체를 통해서 예배에 참석한 노숙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교회의 한 구성원임을 느끼게 하여 소속감을 갖게 해준다. 노숙인 들은 이제까지 떠돌이 생활만을 해왔기 때문에 뚜렷한 소속감이 없이 살아왔으므로 자신들도 일반교회 성도들처럼 교회에 소속되기를 바라지만 노숙인 특유의 고약한 냄새가 나는 그들을 받아줄 교회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처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예배드리는 편안한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곳저곳에서 모여든 인원이 600여명에 이르게 된 것이다. 실제로 서울역 부근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예배시간이 되면 그들 스스로가 이곳저곳에서 모이는 것이다 누워있던 사람도, 쪽방생활자도, 무의탁 노인들도, 이러저런 류의 소외계층들이 모여 좌석이 가득 채워진다. 그들 중에는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려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요즘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오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 처음에는 예배가 아니라 술 주정판 이요, 싸움판 이었는데 지금은 질서정연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신생교회는 목회의 사각지역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들을 섬기는 교회다.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는 교회다.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한 주민이 신생교회의 담임목사에게 질문을 했다. **“비록 노숙인들 이지만 교인이 이렇게 많아 졌는데 이제는 예배당 건물을 번듯하게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담임목사의

대답은 단호했다. 신생교회는 노숙인이 존재하는 한 건물을 세울 수 없습니다. 건물을 세우게 되면 신생교회도 역시 일반 교회와 같이 노숙인들을 품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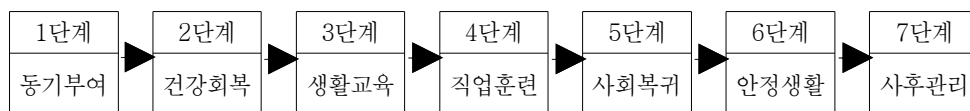
신생교회의 사역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노숙인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고 점심을 주는 것만으로는 그들을 노숙생활에서 건질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 양평에 ‘해 돋는 마을’이라는 공동체를 운영하며 새 사람으로 살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신앙적으로 거듭나게 하여서 개인의 변화정도에 따라 일자리를 잡아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동안 10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노숙인 자활7단계시스템을 통해서 한사람이라도 더 건져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노숙인 들에게 온갖 정력을 쏟고 있는 교회다.

3. 노숙인의 사회적응 자활 7단계 시스템적용

정부기관과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노숙인 지원 사업이 지난 10여 년간 시행되면서 많은 문제점과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성이 미비하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아 일시적인 방편보다는 노숙인의 근본적인 해결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제는 이론에서 실천단계로 지원의 중심이 전환할 때이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이 요구 시 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노숙인 자활 7단계 시스템을 제시한다.

<표 3-1> 노숙인 자활 7단계 시스템



이 자활시스템은 마치 콩이 두부공장에 들어가면 시스템을 통하여 맛있고 영양가 높은 두부가 되어 시장으로 나아가듯 노숙인들이 이 시스템을 통하여 사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프로그램이다. 물론 이 프로그램이 전혀 생소한 것은 아니다. 이제까지도 여

러 채널을 통하여서 종교단체나 봉사단체에서 시행한 비슷한 예들이 있다. 그러나 신생교회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은 무엇보다도 강도 높은 신앙훈련을 통하여 금주와 금연은 물론 “탄탄한 정신력”이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리콜제도”가 있다는 것이다. 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가도 적응을 잘 못하면 자연스럽게 다시 이전 단계로 돌아갔다가 재교육을 받고 다음단계로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한 번 들어오면 성공을 하지 않고는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실시되었던 다른 어느 프로그램보다도 성공률이 높을 것이라 확신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면 공동체는 점차적으로 확산될 것이며 거리에서 방황하는 노숙인들의 모습은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투자하여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설과 강사진과 모든 것들이 최상의 시스템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어야 한다. 좋은 시설과 좋은 음식과 좋은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신바람 나는 교육을 실시해준다면 왜 그들이 다시 거리로 나오겠는가? 그리고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옮겨가는 중에 매 단계마다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하고 신앙을 통하여서 영적인 만족까지 채워준다면 반드시 그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끝까지 훈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반듯이 변화되리라 믿는다. 이제까지 노숙인들에 대한 정책은 궁여지책과 같은 정책이었다. 그들이 거하는 시설이나 그들이 접하는 프로그램은 한마디로 그들에게 호기심을 줄 수 없었고 만족감을 줄 수 없기에 시설에 입소하거나 교육에 참여했다가도 적응을 하지 못하고 사회로 나와 거리를 방황하는 옛 생활을 면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노숙인 정책은 아직까지도 골치 아픈 정책으로 남아있고 거리를 방황하는 노숙인들은 줄어드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 여기에 대한 해법이 있다. 바로 신생교회의 노숙인 자활7단계시스템이다.

1단계: 동기부여 단계로서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사역에 필드인 서울역광장에서 예배와 무료급식과 신앙상담을 통하여 본
인들에게 전원공동체인 ‘해 돋는 마을’에 대한 안내와 자활7단계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입소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교통편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노숙인의 대부분이 얻어먹
을 힘만 있어도 시설입소를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노숙에서 오는
자유로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2단계: 건강회복단계이다.

오랜 동안의 노숙으로 인하여 상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단계
이다. 전원공동체인 ‘해 돋는 마을’에 입소하게 되면 자연을 접하게 되고
맑은 공기와 오염되지 않은 생수와 규칙적인 생활과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되므로 육체에 건강이 급속도로 회복되고 좋아진다. 뿐만 아니라 적당한
운동과 영농과 가축사육과 나무재배를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찾아간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자신이 이제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
닫게 하여 회개함으로 지난날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딛고 일어날 수 있
도록 용기와 희망을 준다. 또한 금주와 금연을 통하여서 인내심과 성취감
을 갖도록 도와준다.

3단계: 생활교육단계이다.

노숙인들은 오랜 동안의 사회단절로 인하여 생활정보는 물론 사회생활에
뒤떨어져있다. 이 부분을 보충시켜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술을 끊고 담배를
끊었다 할지라도 사회생활에 적응하기가 힘들다. 3단계에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신앙생활은 물론, 사회적응교육으로서 컴퓨터, 정보수집, 생활에티켓
같은 것들을 익혀나간다. 그동안 파괴되었던 인격을 치유 및 회복시키는
단계로서 레크레이션이나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인격을 세워나가는 과정
이다. 이 과정에서 노숙인들에게 잃었던 신분도 회복 시켜 준다.(주민등록
재발급, 의료보험증발급, 수급자 신청 등등)

4단계: 직업훈련단계이다.

속담에 아이들에게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했다. 노숙인들 또한 자립을 위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수입을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이나 직업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 소질에 맞는 직업훈련과 기능훈련은 훨씬 효율적이 된다. 그리고 기술을 습득한 후에는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다. 또한 생활자금 및 창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5단계: 사회복귀단계이다.

기술습득 및 창업계획을 가지고 사회로 진출하는 과정이다. 이때부터 실제적인 사회생활의 시작인데 주의할 것은 직장을 연결시켜주되 사업주가 신앙인 인지를 확인하고 자영업을 시작할 때도 철저하게 신앙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준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건축 현장이나 막노동 현장의 일은 피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제까지 잘 하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알콜 노숙인 들의 생태이다. 이 때는 주거도 공동체에서 개인주거로 이사토록 한다. 또한 본인이 통장관리를 잘하고 있는지도 관찰 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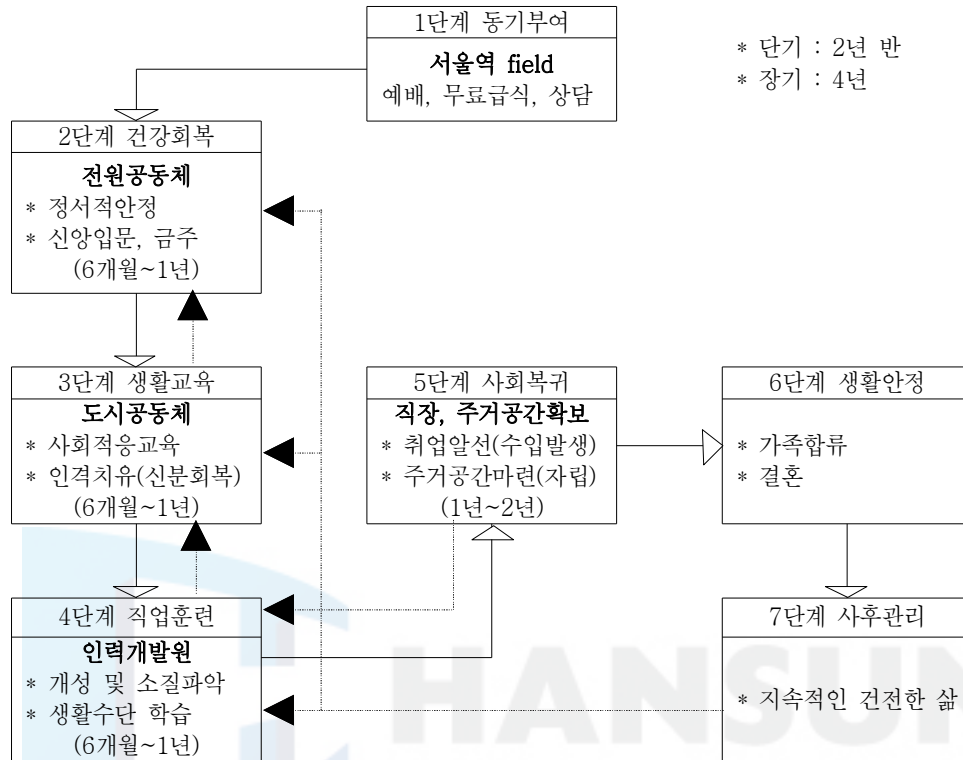
6단계: 생활안정단계이다.

이제까지 헤어졌던 가족들과 합류시키거나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게 해줌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는 단계이다. 혹시 가족들과의 재결합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가족들이나 배우자가 재결합을 원치 않으므로 그런데서 오는 실망이나 좌절로 상처를 받게 하는 수도 있다. 이 단계에서 매우 조심해야 될 일이다.

7단계: 사후관리단계이다.

안정된 삶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어린아이를 낳으면 그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살피 주고 돌봐 주듯이 사회초년생인 새 가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지도하고 신앙의 접목이 잘 되도록 도와준다.

<그림 3-1> 신생교회 노숙인 자활 7단계 시스템



제 4 장 결 론

이제 노숙인 문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그들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숙인 지원 대책과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사회의 취약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한 빈곤의 심화와 열악한 주거문제는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장할 수 없었으며, IMF라는 특수한 상황과 최근의 경제위기는 이들을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닥으로 내모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시해왔던 우리의 노숙인 지원정책은 일률적이고 형식적인 사고에서 집행되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노숙인의 지원에 있어 미시적인 시각보다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다 효과적이며, 개인적인 특성이나 조건 등을 맞춰 정부의 예산과 민간단체의 활발한 도움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확한 노숙인 실태와 지원 단체, 설문조사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의 분배와 더불어 정당한 집행이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조사가 되어야 한다.

지난 10여 년간 노숙인을 위한 목회와 무료급식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이들에게 급식을 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이런 활동들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노숙을 방조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정부와 많은 종교단체와 민간구호단체에서 행하는 봉사가 일시적인 구호활동의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노숙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에게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나왔으나 그 실효성이 매우 적었고 일시적인 대안으로 밖에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단순한 공공근로와 주거제공과 같은 지원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수입으로 알코올문제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노숙인들에게 회전문 이론과 같은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신생교회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숙인들의 복지와 자활을 위해 일자리 알선과 리어카 행상과 교인들과 자매결연 맺어주기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그 결과는 미약했다. 때로는 결과에 대하여 낙심을 할 때도 있었으나 오랜 동안의 시행착오와 인내 끝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시스템을 구상하게

되었다.

먼저 신생교회 노숙인 자활7단계 시스템은 노숙인의 영혼과 신체의 치료를 위해 전원생활을 통한 안정적인 공간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과 금주, 금연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탄탄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중간의 집 격인 도시공동체에서 사회적응훈련 및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를 시킨다. 직업훈련이 병행 실시되며 직업과 주거의 지원을 통해 안정된 생활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다. 각 단계마다 슬립(Slip)할 경우를 대비하여 리콜제도와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노숙문제의 근절을 유지하도록 한다.

장기노숙인과 일시적노숙인을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노숙-불안정주거-노숙과 같은 반복적인 노숙경험을 통해 지속되는 악 순환을 막아야 한다. 또한 일시적인 노숙인은 직업과 주거의 제공을 통해 근본적인 노숙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노숙인은 보다 주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알코올이나 정신질환과 같은 질병의 치유를 거친 후 영성을 일깨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와 노숙인 지원 민간단체와의 협력의 강화 역시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노숙인들의 영혼을 사랑 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주님의 형제로 섬기게 되어 이 땅에 노숙문제가 근절될 것을 믿는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1. 국내서적

- 김계현(1995), 『상담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수현(1997), 『일본 홈리스문제의 이해』, 서울: 한국도시연구소.
- 김호용(2000), 『성경전서』, 서울: 신일기획문화(대한성서공회).
- 남기철(2006), 『노숙인의 심리사회적 외상과 보호시설』,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 남기철(2007), 『노숙인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 신원우(2007), 『노숙인 음주문제의 변화』,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 이기우(1998), 『홈리스의 발생원인과 실태에 관한연구』, 서울: 한국도시연구소.
- 홍선미(1998), 『미국의 홈리스 실태와 대책』, 서울: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

2. 국내논문

- 권주만(2002), “노숙자 실태와 재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금창열(2005), “도심지역 노숙자의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숙(2002), “노숙자 지원 단체종사자의 소진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원(2005), “노숙자에 대한 사회적인식과 태도연구”,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경(2001), “노숙자에 대한 지역사회 태도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숙(2008), “노숙문제에 대한 연구와 사역방안”, 미국장로교총회 한미
목회실.
- 문종임(2002), “노숙자 자활을 위한 원불교의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순자(2001), “노숙자의 음주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의 효과”,
신라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찬(2001), “서울시 노숙자문제와 정책과제”, 서울시립대학교
법률행정논집 제8권.
- 백남해(2002), “마산창원지역의 노숙자문제와 복지대책연구”,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정화(2002), “노숙자 보호시설 자활퇴소자의 재입소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형주(2002), “노숙자 재활프로그램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선희(2002), “노숙자의 가족 재결합에 관한 연구: 전국노숙자쉼터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승득(2001), “한국 실직노숙자에 대한 공공, 민간부문 지원대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아(2003), “노숙자 정책집행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만(2002), “노숙자재활프로그램이 자아실현에 미치는 효과”,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림(2007), “노숙자를 위한 만다라미술치료체험연구”, 서울여대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정구(2001), “실직노숙자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세열(2004), “노숙자의 지원정책으로서의 자활의 집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준영(2001), “실직노숙자 문제해결을 위한 교회의 역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의 경우”, 장신원 석사학위논문.
- 하태선(2001), “노숙자의 범인성환결과 범죄행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운성(2007), “주민생활서비스 개편과 민관협력”, 복지동향 제108호.

ABSTRACT

Study on Christian alternatives to the social adaptability of the homeless

Kim, Won-Il

Major in Welfare for the Aged

Dept.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e homeless have been considered a social issue since the economic crisis in 1999. Even though the government and man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have provided lots of policies and supports to solve the problem, they still remain underdeveloped in many areas.

The first problem is to approach the issue without rigorous preparation, and the second limitation is that the support policy to the homeless for the past 10 years has been simply to approach the issue by concealing homeless people from the public eyes.

In the process of support for the homeless, government took the initiative steps eliminating the participation and/or opinions of the scholars, and activists, which is the third problem. These policies and assistance have been temporary and non-systematic, so their effectiveness has been questionable.

Although we have set up a principal support system for the homeless, the continuation of the assisting project becomes unstable due to the decrease of its dynamic and a drop in social interests caused by the economic difficulty, which is the fourth problem.

The key point is to try to solve the problem by thorough preparation through sufficient discussion and research with the expectation of the origination of the problems and to plan and support in solving the issue in order to establish long term policies. instead of the shortsighted consideration. The long term solutions can be drawn by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supporting NGOs, by promoting the efficiency of policy, and by enhancing independence and creativity of the NGOs.

Finally, it is important to enact a law to support the homeless. The present shelter operation has limitation since it cannot present substance enough to assist self-support of the homeless. Therefore, it is urgently required to enact regulations to support homeless people, which enables to frame and execute the budget systematically fit to the objects of the policy.

While I have been practicing for the last 10 years through free lunch service and delivering to them the love bestowed by The Heavenly Father, I have realized that the homeless issue cannot be solved without healing their fundamental problems. In addition, through the system of the seven steps of self-support for the homeless provided by Shinsaeng church, they have not only received the treatment for their body and mind but also recovered their health by abstaining from alcohol. Also, through the religious life they all have learned the fact that the Father should dwell in their inner self so that they can live in the absolutely perfect house of Him.

All assistance is absolutely difficult without the help of the members of the society. It is high time to throw out prejudice on the homeless people, and to carry into practice the teachings of Jesus Christ in sharing their agony, which is the only way to stop the problems of the homeless in this land.